

# 산업부, 전자기기·화장품·비철금속 등 수출 주력품목 확대

수출입 통계품목 분류 전면 개정 생활용품 등 20대 주력품목 체계 김정관 장관 “수출 실적 뒷받침”

정부가 우리 산업과 수출 구조 변화를 반영해 수출입 통계 품목 분류 체계(MTI)를 6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 올해 우리 수출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글로벌 순위(2월 누계 기준)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산업통상부는 6일,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 품목에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물, 화장품, 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을 추가한 20대 주력 품목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한류 열풍으로 급성장한 소비재와 공급망 핵심인 중간재를 주력 통계에 포함했고, 이들 통계를 지속 제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25년 기준 전체의 86.3%로 기존 15대 품목(77.2%)보다 높아져 보다 상세한 수출 동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주



산업통상부는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증가한 2199억 달러, 수입은 10.9% 증가한 1694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50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요 품목 세부품목을 조정했다. 품목별로 반도체(메모리·시스템 분리는 기존 ‘집적회로’ 코드 내에 혼재되어 있던 시스템 반도체를 별도 코드로 신설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가격 변동성이 큰 DRAM과 낸드플래시(NAND) 등으로 세분화해 제품별 업황을 정부 공식 통계로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계중 구조 재편)는 차종과 구동방식이 혼용되던 체계를 바로잡았다. 상위분류는 트랙터·승합차·화물차·승용차 등 차종별로 나누고, 그 하위에서 내

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 파워트레인을 구분한다. 특히 신차와 중고차 수출을 분리해 최근 급성장 중인 중고차 시장 동향도 파악 가능하다.

배터리 및 소재(가치사슬 통합)의 경우 기존 ‘기타 축전지’에 묶여 있던 리튬이온배터리를 독자 코드로 신설했다. 또 여러 품목에 흩어져 있던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를 ‘축전지 소재’ 코드로 통합해 배터리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바이오헬스는 독자적인 MTI 코드를

부여해 의약품(원제/원료)과 의료기기로 이원화했다. 일반기계는 현장 수요에 맞춰 제조장비·산업기계·에너지기계·기계부품으로 재편됐고, 섬유는 가방·신발 등을 포함하는 ‘섬유패션제품’으로 통합해 산업 대표성을 확보했다.

산업부가 개정된 MTI 코드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139% 급증한 7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은 화물차(+63.9%)는 크게 증가했으나, 승용차(-2.2%), 승합차(-31.7%) 등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0.3% 감소한 1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소비재 품목 수출은 한류 확산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K-뷰티 선호 증가로 화장품(31.3억 달러, +21.5%) 수출이 증가했으며, 농수산물 수출은 K-푸드 인식 제고로 면류(5억 달러, +24%) 등 품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7.4% 증가한 3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생활용품(21.0억 달러, +3.9%) 수출은 K-콘텐츠 인기 확대로 문구·완구(7.8억 달러, +16.6%) 등

이 호조세다.

특히 올해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026년 1~2월 누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액은 1332억 달러를 기록하며 6위 일본(1203억 달러)을 제쳤다. 한국은 상위 7개국 중 가장 높은 3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위 네덜란드(1598억 달러)를 추격 중이다. 분기별 수출 역시 일본을 여유있게 앞서는 5위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한편, 반도체 외 수출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로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도 5위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과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무역금융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한전, 변전소 유후부지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2030년까지 95MW 태양광 설비 구축 김동철 사장 “국가 탄소중립 실현 기여”

한국전력이 전국의 변전소 유후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 구축에 나선다.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던 변전소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전은 공공기관 K-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500개 변전소에 총 9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른바 ‘송변전 유후부지 에너지화’ 프로젝트다. 한전은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조정부



지, 자투리땅 등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한 부지 500여 곳을 발굴했다.

이는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태양광 설비 도입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 이상의 효과를 노린다. 특히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의 경우, 기존 수목 조정 부지를 태양광 설비로 전환하면 산불 발생 시 불길이 번지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재 벽’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전은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한전은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올해 1MW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검증한 뒤, 2030년까지 95MW 규모를 단계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은 “변전소 유후부지를 활용한 95MW 태양광 구축은 에너지 대전환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K-RE100 대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산업기술원, 민간기업 탄소중립 지원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기업 업무협약

탄소중립을 향한 유럽연합(EU) 국가 등 주요국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도 이산화탄소 감축 활동과 관련한 ‘투명 공시’가 추진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탄소중립·친환경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활동 내역을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게 공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30일 녹색 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참여 5개 기업과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S전선, 삼성SDS, 우리은행, 효성중공업이다. 정책 기조를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원에 합류한다.

이들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정보공개 장구를 통해 녹색 경제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시장과 투자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환경산업기술원 측 설명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참여기업들이 녹색분류체계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를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 5개사는 경영 활동 중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활동을 식별하게 된다. 이를 녹색 매출액, 녹색 자본지출(CapEx) 등 성과지표로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 이어 기후부 및 환경산업기술원과의 협력하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 사례를 도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마사회, 체험형 인턴 모집

한국마사회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직무능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마사회는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60명 모집’ 공고를 냈다. 한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채용은 ▲사무·기술보조 ▲말산업 전문 ▲AI·빅데이터 전문(3명) ▲불법단속 등 4개 분야로 이뤄지며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학력, 성별, 전공 제한은 없다.

합격자들은 과천을 비롯해 부산·경남, 제주 등 전국 사업장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산업인력공단, 근로자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초훈련 등 성장 기회 제공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공간의 제약을 허문 ‘AI 기초훈련’과 ‘AI 융합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AI 기초훈련’은 AI 활용 경험이 없는 비전문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입문 과정이다.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턱 없는 시작’에 있다.

기초를 다진 근로자들이 현업에서 즉시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 융합훈련’도 운영된다. 이는 산업별 특성과 직무 지식을 AI 기술과 결합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급·응용 단계의 심화 과정이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중소기업 핵심인재 양성에 인공지능훈련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산업 현장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부산항만공사, ‘스마트 항만’ 사전작업 분주

항만하역장비에 AI기술 접목 모색

부산항만공사(BPA)가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에 한창이다. 민간기업 등과 손잡고 항만하역장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남 영암에서 ‘AI 기반 항만하역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협의회’가 열렸다.

지난달 HD현대삼호보타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국내 항만전문기술 보유기업 7개사의 관계자가 모였다. 부산항만공사와 HD현대삼호, 항만장비업체, 인공

지능기술 기업 등이다.

참석자들은 상호 핵심기술을 공유하는 동시에, 향후 이를 항만 크레인 운영 자동화, 유지보수 지능화 수준 제고 등 정부의 실물인공지능(피지컬 AI) 공동사업 발굴과 연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사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 연구과제인 ‘K-스마트 항만 구현을 위한 피지컬 AI 항만물류’ 공동사업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도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사업과 정부과제까지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